

대만 최대의 태양광 전시회

대만 PV Taiwa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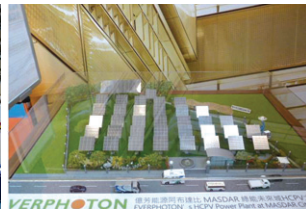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PV Taiwan 2011(Taiwan International Photovoltaic Forum & Exhibition)
- 개최장소 : 타이베이 TWTC(국제무역센터) Hall 1
- 개최기간 : 2011년 10월 5일~10월 7일 (3일간)
- 주최자 : SEMI, TAITRA
- 웹사이트 : www.pvtaiwan.com
- 전시분야 :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HCPV, BIPV, 시스템, 응용 상품 등
- 참가업체 : 286개 사 (대만: 238개 사/ 해외: 48개 사)
- 참가부스 : 806개
- 전시면적 : 16,950㎡
- 관람객 수 : 10,045명

태양광 주택 모형과 태양광 발전소 모형



출처 : KOTRA 타이베이무역관



2011년 5년째를 맞은 PV Taiwan은 대만 최대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로서 태양광 산업의 신제품과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및 유럽 발 악재로 태양광 산업을 포함한 대만의 주요 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PV Taiwan은 2010년보다 참가업체 수가

29% 증가한 286개 사, 806개 부스가 설치되어 태양광 산업의 여전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 MEMC, 독일 Phoenix Solar, Inventux Solar와 태국의 Energy Absolute Pubile, UAE의 Apex Power Concepts 등 70여개 국가의 바이어들이 PV Taiwan에 방문하여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태양광 제품 생산 국가라는 대만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5개 테마관의 하이라이트

2011년 PV Taiwan에서는 태양전지/모듈/시스템관, DSSC(염료감응형 태양전지)관, HCPV(집광형 태양전지)관, 응용제품관, 태양광연구논문전시관 등 5개 테마관으로 구성되었다. DSSC(Dye-Sensitized Solar Cell,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제조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원가가 낮으며 에너지 회수 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DSSC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대만 공업기술연구원과 Eternal Chemical, Everlight Chemical, FHR ANLAGENBAU GMBH 등 업체의 부스에서 DSSC의 발전 양상과 응용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다.

태양전지/모듈/시스템관에서는 대만 국내외 80여개 업체가 모여 최신 제품 및 기술 솔루션을 전시하였다. 주최자인 SEMI Taiwan의 총재 曹世綸은 대만의 태양전지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PV Taiwan 전시회를 통하여 대만 제품의 해외 수출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인 HCPV(High Concentration Photovoltaics, 집광형 태양전지)는 절전 전지 재료로서 발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HCPV의 기술적 우수성으로 인해 PV Taiwan에서는 3년 연속 HCPV 전용 테마관을 만들어 관련 기술과 모듈을 전시하였다.

전시회 속 눈에 띄는 우리기업

이번 PV Taiwan 전시회에는 폴리실리콘 업체인 한국의 OCI가 참가하여 많은 대만 업체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2011년 전세계 폴리실리콘의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CI는 미국 Hemlock, 독일 Wacker, 중국 GCL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폴리실리콘 업체로 평가된다. 2012년에는 태양광 원료 분야에서 이들 4개사와 후발 업체들의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언론들은 이 네 개사 중에서 한국의 OCI와 중국의 GCL의 발전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구미 업체들과는 다르게 한국과 중국 업체들은 가격이나 기타 조건에 관한 협상이 가능하여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대만 업체들에게 어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폴리실리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대만으로의 태양광 원료 수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실리콘 업체인 한국 OCI와 중국 GCL의 전시회 부스



출처 :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전시회를 통해 본 대만 태양광 산업 전망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전년 대비 153%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 태양광 산업은 2011년 상반기에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온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로 국가들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하여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어 태양광 제품 수요의 둔화를 야기하였다.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대만의 태양광 산업의 생산 능력은 증가하였으나 관련 제품의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대만 태양광 산업의 생산액은 작년 2,062억 대만달러(약 68억 7,000만 달러)에서 2011년 1,924억 대만달러(약 64억 달러)로 최근 5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대만의 Neo Solar Power는 세계 태양광 산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하여 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Motech와 Gintech에 이어 세계 10대 태양전지 업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태양광 산업의 과열화로 인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 관련 정책이 조정을 받고 있어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태양광 산업을 본다면 이는 여전히 각 정부의 녹색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으로 인한 꾸준한 원가 절감과 기술 효율 제고로 인한 경쟁력 확보로 인하여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향후 주요 산업으로서의 축을 이룰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K**